

새로운 아틀란타와의 파트너십은 시민권 교육과 인식을 지원합니다

미국이민국 근무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임무는 서류를 정리하고 양식에 인장을 찍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자 및 새로운 시민들에 대한 저희의 헌신은 정부 건물 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섬기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구현하며, 위대한 우리 나라에 기여하도록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열성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시와 협력하여](#) 이민자들이 더욱 잘 융화되고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4월 23일 목요일에 아틀란타 시청에서 Kasim Reed 시장과 함께 [합의서](#)에 서명하여 시민권 교육 및 인식을 촉진하기 위한 현지의 노력을 강화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 Kasim Reed 시장(왼쪽)과 미국이민국 León Rodríguez 국장이 합의서에 서명

시장과 저는 아틀란타-폴턴 공립 도서관들에 "시민권 코너를" 개설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귀화 절차 및 [무료 미국이민국 준비 자원](#)에 대해 도서관 직원들과 시청 직원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아틀란타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내시빌 및 데이비드슨 카운티 시청에 이어 네번째로 합류하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 시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지역사회들과 관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미국인들을 함께 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동 최신헌의는 최근에 새로운 미국인에 대한 백악관 전담반이 발표한 [계획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에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종종 어려운 일들을 하며 새로운 에너지, 아이디어 및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기관 및 국가로서

저희의 임무는 그들이 그들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의 조상들이 이곳에서 생활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의 일은 새로운 이민자가 그러한 고생을 홀로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국인에 대한 백악관 전담반](#)의 공동의장으로서 저는 #NewAmericans를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여러분 자신의 이민 스토리를 공유하시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권유 드립니다.

León Rodríguez 국장
미국이민국

[조인식 동영상 보기](#)